

## 「Metropolis Pt.2: Scenes From a Memory」의 음악 연출과 기법 연구

### A Study on Musical Direction of 「Metropolis Pt.2: Scenes From a Memory」

최 싣 행, 이 승 연

상명대학교 문화기술 대학원

Shin-haeng Choi, Seungyon-Seny Lee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SangMyung Univ.

#### 요약

콘셉트 앨범에서 음악적 연출을 위한 기법으로 앨범 내 서로 다른 곡에서 사용한 반복적 음악 요소를 사용한다. 리프, 솔로, 멜로디, 화성 진행의 반복적 사용을 통하여 각각의 곡들이 콘셉트 앨범 내에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든다. 이러한 연결 구조를 통하여 음악적 기법과 내러티브의 연관성을 찾는다. 연관성을 통하여 콘셉트 앨범의 음악적 연출과 내러티브 표현의 방법을 분석한다.

## 1. 서론 - 콘셉트 앨범의 음악적 반복 기법

앨범을 하나의 주제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작하는 방식을 콘셉트 앨범이라 한다<sup>[1]</sup>. 드림 시어터(Dream Theater)의 「Metropolis Pt.2: Scenes From a Memory」는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이자 콘셉트 앨범이다. 앨범의 서로 다른 음악에서 동일한 음악 기법을 통해 내러티브를 표현한다. 본 논문에서는 드림 시어터의 앨범을 통하여 반복적 음악적 기법을 통한 곡간의 연결 및, 내러티브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콘셉트 앨범 제작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 1. 음악적 기법의 반복

드림 시어터가 사용한 음악의 반복 기법은 앨범의 이야기를 연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기법의 형태는 리프, 솔로, 멜로디, 화성 진행으로 나눈다.

#### 1.1 리프의 반복과 변주



〈악보 1. 'Overture 1928' G 파트 리프〉

앨범의 2번 트랙인 연주곡 'Overture 1928'에서 사용한 G 파트의 리프는 화성이 없는 논 코드(Non chord) 구간이다. 첫 마디와 세 번째 마디는 4/4박자로 진행을 하며, 16분 음표의 세음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연주한다. 두 번째 마디와 네 번째 마디는 7/8박으로 16분 음표의 같은 두 음을 연주하며 반음계 하행을 한다.



〈악보 2. 'The Dance of Eternity' C 파트 리프〉

앨범의 9번 트랙인 두 번째 연주곡 'The Dance of Eternity'의 C 파트는, 'Overture 1928'의 G 파트 리프를 변주의 형태로 사용한다. 첫 마디와 세 번째 마디에서 앞서 사용한 리프의 두 옥타브 위를 연주한다.

이후 두 번째 마디에서 다른 새로운 연주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sup>[2]</sup> 두 곡간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리면서 서로 다른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다섯 번째 마디와 일곱 번째 마디는 'Overture 1928'에서 연주한 음의 높이와 동일한 위치에서 같은 연주를 시도한다. 두 곡의 리프의 특징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여섯 번째 마디에서 전혀 다른 연주를 사용하여 특징을 살렸으며, 여덟 번째 마디는 다음 파트로 연결하기 위한 연주를 사용한다.

이러한 두 연주곡의 공통적인 연주 기법을 통하여 연결성을 만들어 이야기 전개를 은유적으로 유도한다.

#### 1.2 솔로의 반복과 변주



〈악보 3. 'Overture 1928' D 파트 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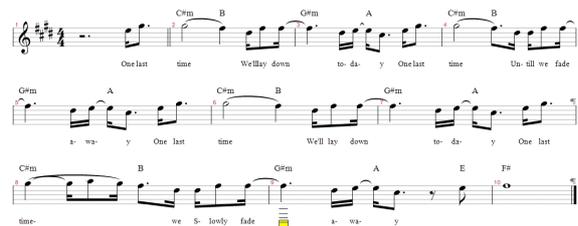
‘Overture 1928’의 [D] 파트 기타 솔로 부분은 F#7 코드를 중심으로 윈 코드 솔로를 사용한다. F# 믹솔리디안 음계로 연주하며 4/4박과 3/4박을 번갈아가며 여섯 마디를 연주한다. 이후 마지막 두 마디는 4/4박으로, 경과음을 이용한 F# 도리안 음계를 사용한다.



〈악보 4. ‘One Last Time’ 인터루드 기타 솔로〉

앨범의 10번 트랙 ‘One Last Time’의 후렴 이후에 나오는 인터루드 기타 솔로 구간이다. 여덟 마디의 기타 솔로를 연주하며 ‘Overture 1928’과 마찬가지로 F#7 코드를 중심으로 F# 믹솔리디안 음계 여섯 마디를 연주한다. 특히 ‘Overture 1928’ [D] 파트 솔로의 첫 마디와 두 번째 마디를 악보 4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마디에서 동일하게 연주한다. 이후 여덟 번째 마디는 F# 마이너 펜타토닉 음계의 릭(Lick)을 연주한다. ‘One Last Time’의 앞뒤 가사를 통해 연인이 만나는 상황의 연출임이 나타나며, 이러한 연주를 ‘Overture 1928’에서 사용하여 하나의 복선을 표현한다.

### 1.3 멜로디의 반복



〈악보 5. ‘One Last Time’ 후렴〉

‘One Last Time’의 후렴은 C# 마이너 조성을 사용한다. 빅토리아가 연인 줄리안과 다시 재회함을 노래하는 부분으로, 가사를 통하여 정확한 이야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악보 6. ‘Finally Free’ 브릿지 2〉

동일한 가사와 멜로디를 ‘Finally Free’의 두 번째 브릿지에서 사용한다. C# 마이너 조성을 사용한다는 점을 포함하여 멜로디의 구조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마지막 두 마디는 브릿지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기 위한 해결요소를 사용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가사의 화자를 빅토리아의 죽음을 목격한 연인

줄리안으로 설정하여, 두 곡에서 연인의 테마로 각각 사용한다.

### 1.4 화성 진행의 반복과 변주



〈악보 7. ‘Regression’ 화성 진행〉

앨범의 첫 트랙 ‘Regression’은 최면술사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니콜라스가 최면에 빠지는 장면을 표현하며, D 메이저 조성을 사용한다.



〈악보 8. ‘Finally Free’ 전주〉

12번 트랙 ‘Finally Free’의 전주는 ‘Regression’과 동일한 조성화성 진행을 사용한다. ‘Regression’의 연주 방식은 서플 리듬 스트로크(Stroke)로 연주한다. 하지만 ‘Finally Free’에서는 아르페지오 주법을 사용한다.

최면술사가 최면을 종료하는 내레이션과 함께 연주하는 앨범의 마지막 곡으로, 1번 트랙 ‘Regression’과 상응한다. 마지막 곡이 첫 곡과 연결이 되면서 윤희, 되풀이되는 이야기를 의도한다. 첫 곡에서 나타난 테마가 마지막 곡에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형식은 순환하여 다시 첫 곡과 맞물리는 효과를 의도한다.[3]

## 2. 결론

「Metropolis Pt.2: Scenes From a Memory」는 다음과 같은 음악 기법의 반복과 내러티브의 상관 관계를 표현한다. 첫째, 연주 기법의 반복 활용을 통한 은유적 표현과 둘째, 가사의 멜로디나 화성 진행으로 직접 표현하였다. 연주의 반복을 통한 순환의 의미, 상황에 대한 복선, 인물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테마, 윤희의 상징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또한 처음과 마지막이 연결되는 수미상관의 형식, 복선을 제시하는 음악의 반복은 단순히 이야기의 서술이 아닌 짜임새 있는 내러티브를 음악적 연출을 통하여 표현한다. 드림 시어터의 콘셉트 앨범 연출 방식은 음악적 테크닉뿐만 아니라, 이야기 전개의 개연성을 갖는 음악적 표현방식을 제시한다.

### ■ 참고 문헌 ■

- [1] Roy Shuker, “Popular Music: The Key Concept,” Routledge, pp. 7-8, 2005.
- [2] Gregory R. McCandless, ‘Rhythme and Meter in the Music of Dream Theater’, Florida State University, 2009, p. 113.
- [3] Marianne Tatom Letts, ‘How to Disappera Completley: Radiohead and Resistant Concept Album’,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05, p. 19.